조현우 〈울산〉 vs 양민혁 〈강원〉 vs 안데르손 〈수원FC〉

K리그1 시즌 MVP 경쟁

K리그2 MVP는 마테우스·모따·주닝요 후보 올라

프로축구 시상식, 29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 개최

프로축구 K리그1 2024시즌 최우수선수(MVP)를 놓고 조현우(울산)와 양민혁(강원), 안데르손(수원FC)이 경쟁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4 하나은행 K리그1과 K리그2의 최우수감독상과 MVP, 영플레이어상, 베스트11 등 개인상 후보를 20일 발표했다.

연맹 기술위원회(TSG) 소속 위원, 취재기자, 해설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선정위원회가 지난 18일 각 부문 3배수 후보를 추렸다.

MVP 후보에는 조현우, 양민혁, 안데르손이 선정됐다.

골기퍼 조현우는 이번 시즌 전 경기(37경기)에 나서 38실점했고, 14경기에선 무실점으로 선방해 소속팀 울산 HD의 3연패에 힘을 보탰다.

2006년생 양민혁은 올 시즌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5번이나 수상했다. 데뷔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해 11골 6도움을 올렸다.

이번 시즌 준프로 신분으로 K리그에 데뷔한 양민혁은 지난 7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계약해 시즌 종료 후 영국으로 건너간다.

안데르손은 전 경기에 출전해 7골 13도움으로 37라운드 기준 리그 최다 공격포인트(20개)를 기록하고 있다.

K리그1 올해의 감독상은 김판곤 울산 감독, 윤정환 강원FC 감독, 정정용 김천 상무 감독이 경쟁한다.

영플레이어상 후보는 양민혁, 홍윤상(포항), 황재원(대구)이다.

K리그2에선 마테우스(안양), 모따(천안), 주닝요(충남아산)가 MVP를 놓고 격돌한다.

감독상 후보는 유병훈 FC안양 감독, 김도균 서울이랜드 감독, 김현석 충남아산 감독이 올랐다.

영플레이어상은 김정현(충북청주), 윤재석(전남), 채현우(안양)가 다툰다.

수상자는 20일부터 진행되는 각 구단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 투표로 선정한다.

감독상, MVP, 영플레이어상은 1명씩, 베스트11은 골기퍼 1명, 수비수 4명, 미드필더 4명, 공격수 2명이 받는다.

베스트11 수비수와 미드필더는 좌, 우, 중앙을 구분해 수상자를 가린다.

하나은행 K리그 2024 대상 시상식은 오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연맹은 K리그 공식 소셜미디어(SNS) 사전 이벤트를 통해 시상식에 참석할 팬 약 300명을 선정한다. 신청은 22일까지며, 당첨 여부는 25일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 /뉴시스

"고생했어" 19일 오후(현지시각) 요르단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 선수들이 서로 격려를 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직무태만' 결론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김정배 부회장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징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20일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정 회장이 업무상 성실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7월 홍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윤리센터는 회장으로서 협회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 요청 대상에는 정 회장과 함께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포함됐다.

윤리센터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고 홍 감독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이 근거 없는 행정이라고 봤다.

또 이 이사가 감독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내용을 남겨두지 않고 공유하지 않은 것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감독에 대해선 선발 과정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정 회장과 김 부회장, 이 이사는 지난 5일 발표된 문체부 특정감사에서도 중징계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들의 징계 여부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정한다.

한편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협동·노력·도전의 가치'

부안동초 여자 배구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서 3위 차지

부안동초등학교(교장 임학래) 여자 배구부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3일간)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안동초등학교 여자 배구부는 끈끈한 팀워크와 강한 정신력으로 예선전부터 8강 경기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와의 경기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준결승에 작년 우승팀인 충청남도 팀을 만나 아쉽게 패배해 전국 3위를 달성했다.

특히 배구부 학생들은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서로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승석 지도 교사는 "아이들이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과를 냈다"며 "결과를 떠나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부안동초등학교 배구부는 내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협동, 노력, 도전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부안동초등학교 여자 배구부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3일간)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임학래 교장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경기를 직접 보면서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며 지역 주민들의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했다. 앞으로도 이들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은 전북현대모터스 김진수 선수가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발전을 위한 발전후원금 500만원을 지정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병원 제공〉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 가득하길"

전북현대 김진수,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에 발전후원금

전북대학교병원은 전북현대모터스 김진수 선수가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발전을 위한 발전후원금 500만원을 지정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진수 선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어린이병원 발전과 치료 중인 아이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전북대병원 발전후원회를 통해 어린이병원에 지정 기부했다.

전달식 이후 김 선수는 어린이병원 병동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직접 사인볼을 전달하고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김 선수는 "천사 같은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길 바란다"며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아이들이 하루빨리 쾌유해서 힘차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김진수 선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 선수의 선한 영향력은 어린이병원 환아들에게 큰 사랑과 희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기부금은 어린이병원 아이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투표 오늘 시작… 日 올스타와 대결

일본 W리그 올스타와 붙는 한국 여자프로농구 올스타를 뽑는 팬 투표가 21일 시작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1일 오전 10시부터 하나은행 2024~2025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투표를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투표는 12월2일 오후 2시까지며,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차례씩 할 수 있다.

1회 투표 시 총 10명을 선택할 수 있고, 구단별 최대 2명에 투표가 가능하다.

선정된 올스타 선수들은 12월 22일 부천체육관에서 일본 W리그 올스타와 대결한다.

각 구단의 추천을 받은 30명의 후보 명단도 공개됐다.

용인 삼성생명은 강유림, 배혜윤, 이주연, 이해란, 키아나 스미스가, 인천 신한은행은 김진영, 신이슬, 신지현, 이경은, 최이샘이 후보에 올랐다.

아산 우리은행은 김단비, 스나가와 나츠키, 심성영, 이명관, 한엄지 등이 후보로 추천됐다. /뉴시스